장 주네 (하녀들)의 현대 춤 창작과정 분석

A Study on the Creation of the Modern Dance Process of Jean Genet

김 혜 정, 유 영 주*, 강 희 진**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Kim hye-jeong, You young-ju*, Kang hee-jin**
Dnakook Univ., Dnakook Univ.*, Dnakook Univ.**

요약

이 연구는 장 주네의 희곡 〈하녀들〉을 모티브로 춤과 연극 형태의 융합을 시도하는 창작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한 장르의 융합과 창의적인 새로운 형태의 창작과정을 재해석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춤과 연극의 융합이 더 이상 새로운 시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 요소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연구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작품 〈하녀들〉은 장 주네의 희곡 〈하녀들〉을 모티브로 춤과 연극 형태의 융합을 시도하는 창작과정을 분석하였다.

작품 하녀들 〈Les Bonnes〉(1947)은 프랑스의 극장가 장 주네(J. Genet, 1910-1986)의 단막극 작품으로 당시 화제가 된 실화를 소재로하며 극중극 형식을 통해 부르주아 마담을 향한 하녀들의 반란을 그린 작품이며, 마담과 하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소외에 저항하는 하녀들의 절망감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춤연극〈하녀들〉에 대한 다양한 장르의 결합을 통해 마담과 하녀들의 운명적 대비를 통한 유럽 부르주아 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역동적 움직임으로 표현함에 있어 그 의미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하녀들〉에 대한 많은 공연형태와 연구들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연극에서 다루어졌으며, 춤연극 형태의 공연과 움직임 분석의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장르의 융합과 움직임의 창작과정 분석을 통한 재해석에 시사점이 있다.

2. 연구관점 및 특성

이 연구는 현대무용을 전공한 연구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작품을 재해석하였으며, 작품 구상과 안무 및 연습, 구성의 전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분석을 위해 소셜미디어 자료를 통한 하녀들 작품을 접하였으며 원작에 대한 이해와 안무의 구성관점을 연구하였다.

둘째, 몸의 언어인 움직임과 연극적인 요소를 융합한 새로운 춤연극작품 〈하녀들〉의 연습기간은 2010년 1월 초부터-4월 중순까지 단국대학교 무용과 무용실에서 약 4개월간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대본각색 작업과 대사 및 움직임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되 대사를 최소화하면서 움직임의 의미에 대한 분석관점을 찾고자 하였다.

셋째, 융합작품에 대한 장르별 접근관점을 수평적 대립이라는 긴장감 형성과 자율적 사고의 극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2년 4월 2일 (2010 현대극 페스티벌 장주네 탄생 100주년 기념) 저녁 8시에 대학로 노을극장에서 〈하녀들〉을 공연하였다.

이 연구는 희곡인 원작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춤연극의 재해석을 통해 안무가의 주관적인 관점과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다양한 토론과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작품에서 내적마리와 외적마리의 갈등요소라는 이중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특히 하녀들의 심리적 표현과 다양한 움직임의 상징성들은 2명의 무용수와 함께 절제적인 듀엣으로 장면 연결을 시도함이 특성이었다.

3. 결론

이 연구는 장 주네의 희곡 〈하녀들〉을 춤연극으로 재해석하여 초연된 작품분석으로 현대무용의 다양한 움직임표현을 창의적이고 상징적의미의 협업을 통해 분석결과를 시도함에 그 의미가 있겠다.

이 연구자는 춤연극〈하녀들〉의 각 장면별 작품분석의 특성과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 1장 〈끌레르와 쏠랑쥬〉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전개와 무용수들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구성 요

소로 의미부여시켜 제시해보았다. 또한 도구(커피포트 및 커피포트를 받치는 쟁반)사용 및 함축적인 의미부여를 움직임에 확장시켜 장면마다 전체의 주제가 각 장면에 응축, 암시되도록 유도하였다.

2. 제 2장 〈쏠랑쥬와 끌레르〉 등장인물들의 사회적인 소외와 이런 소외에 저항하려는 이들의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해 인간의 암담한 처지와 절망적인 몸부림을 두 무용수의 섬세하고 반복적인 움직임과 소품을 사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관객을 대신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식하게 연출하였다.

3. 제 3장 〈끌레르와 쏠랑쥬 그리고 마담〉 각 장면별 인물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다양하고 반복된 움직임을 빠르게 표현하였으며, 지배와 피지배자의 관계설정에 신체접촉을 사용하여 충격적인 움직임을 확장시켰다.

결과적으로 춤연극〈하녀들〉은 각 장면별로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극적인 내용보다는 인간의 심리적 내면갈등과 관계성을 풀어가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다시말해 어느 부분에선 대사나 오브제보다는 신체언어가 더 강한 표현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대사를 삭제시키고 신체언어를 적극적으로 전달수단으로 사용시켜 다양하고 반복적인 움직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관객과의 소통의 극대화에 의의를 두었다.

공연예술에서 춤과 연극의 융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새로운 시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 요소로 발전될 것이며 이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연구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백순원 “장 쥬네의 희곡〈하녀들〉의 극작술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09.
[2] 송민숙 “다문화적 무용극으로 다시 태어난 〈하녀들〉”, 공연과이론, 제16호, pp.158-159, 2005.
[3] 안병순 “S.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의 무용창작과정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6호, pp.421-429, 2007.
[4] 엄연미 “장 쥬네 작 〈하녀들〉의 ‘끌레르’ 역할창조 적근방법 연구 : 등장인물의 체스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2013.
[5] 최서은 “놀이형식을 활용한 장 쥬네〈하녀들〉의 무대 형성화 연구 : 공연제작 연출노트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